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

Movie Dongju and The Aura of Yun Dong-Ju

저자 (Authors)	김응교 Kim, Eung-Gyo
출처 (Source)	사고와표현 9(2) , 2016.8, 215-253 (39 pages) Ratio et Oratio 9(2) , 2016.8, 215-253 (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고와표현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inking and Communic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03218
APA Style	김응교 (2016).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 사고와표현, 9(2), 215-253.
이용정보 (Accessed)	숙명여자대학교 203.252.***.225 2019/04/12 00: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

김응교

숙명여자대학교

이 글은 영화 <동주>가 ‘윤동주’라는 실제 인물과 그 시대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분석한 논문이다. ‘윤동주 아우라’를 되살리기 위해, 이 영화는 다섯 가지 인물을 등장시켰다. 형사, 송몽규, 윤동주, 여진, 부차적 인물들은 각기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14편의 시를 적절히 선택 인용하여 시퀀스를 의미있게 하는 고정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법으로는 추리기법, 페이드 백, 흑백영상, 시집 구성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몇 가지 성찰을 할 수 있겠다. 윤동주 시에 대해 영화의 해석과 실제 해석의 차이와 다양성을 나눌 수 있겠다. 영화 <동주>에 나타난 여러 인물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겠다. 영화 <동주>를 통해 윤동주 판결문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며 윤동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영화 <동주>에 쓰인 추리기법, 플래시백과 흑백영화 등 여러 기법을 논할 수 있겠다.

* 이 글은 2016년 6월 11일 한국사교와표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박상민 교수님(가톨릭대)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영화 <동주>와 시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영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사회에서 이준익 감독과 배우들이 했던 말과 날짜는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교내연구과제(1-1503-0048)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통한 성찰적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영화, 윤동주, 아우라, 추리기법, 플래시백, 흑백영화

I. 윤동주라는 아우라

아우라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 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따라갈 때-이것은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 쉰다는 뜻이다.¹⁾

아우라(Aura)는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일회적 아우라를 체험하는 순간 인간은 마치 신을 만난 듯한 숭고한 제의가치(祭儀價值, Kultwert)를 느낀다. 아우라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다. 반면에 아우라를 복제한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상품은 전시가치(展示價值, Ausstellungwert)를 지닌다.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들이 고급예술품을 살 수 없어 복제하기 시작한 싼 복제물들을 키치(Kitch)라고 한다. 키치야말로 아우라를 복제한 전시가치의 상품들이다.

발터 벤야민은 사진과 영화에서 진보적인 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은 예술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를테면 피카소와 같은 회화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낙후된 태도가 채플린과 같은 영화에 대해 갖는 가장 진보적 태도로 바

1) Walter Benjamin, 2009,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6),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길, 50쪽.

편 것이다”²⁾라며 소비에트 영화와 채플린 영화의 집단적이고 진보적인 특성을 예로 들면서 복제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탈(脫)아우라의 과정을 거친 영화나 사진예술들이 나름의 복제물들도 재(再)아우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발터 벤야민의 생각을 떠올리며 시인 윤동주(尹東柱, 1917~1945)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들을 생각해 본다. 윤동주와 명동마을이라는 아우라는 이제 더 이상 체험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2016년 들어 영화, 다큐 등 ‘윤동주 열풍’이라 할 만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까지는 윤동주 아우라를 우리는 시를 통해 접근해 볼 뿐이었다. 최근에 윤동주라는 아우라에 다가가려는 많은 문화콘텐츠들이 생산되었다. 내년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에는 더 많은 문화콘텐츠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윤동주 아우라’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 13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주최로 〈윤동주 기념 심포지엄〉³⁾도 있었다. 내용은 ‘윤동주’를 주제로 만들어진 여러 문화콘텐츠를 검토하는 것으로, 『윤동주, 시대의 초상: 장르적 경계를 넘어 대화의 창으로』라는 주제였다. 여러 문화콘텐츠들은 윤동주를 다시 알린 역할을 했는데, 특히 2016년 윤동주 시인의 기일인 2월 16일에 상영되기 시작한 영화 〈동주〉는 크게 주목받았다. 5억이라는 저예산으로 만든 흑백영화지만, 6월 4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관람자가 1,168,48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화는 제목에 앞서 “영화 ‘동주’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토대로 만든 순수 창작물이며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림 1)라

2) Walter Benjamin, 위의 책, 80쪽.

3) 이 날 발표자는 영화 〈동주〉의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했던 신연식 감독, 『윤동주 평전』을 저술한 소설가 송우혜,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를 연출했던 권호성 연출가 등이었고, 필자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는 언급으로 시작한다.

영화 '동주'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토대로 만든 순수 창작물이며,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1〉

아우라를 강조하는 위험보다는 '순수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화는 픽션이기에 사실과 달라도 된다는 전제(前提)다. 사실 실제인물이었던 윤동주의 삶 27년 2개월을 러닝타임 110분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 제작자들은 실제 시간을 재료로만 쓰고 부분절취(部分截取)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사실과 같지 않더라도 잘 만든 영화는 사실에 근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영화는 윤동주뿐만 아니라, 과연 한 사람의 '인물 아우라'를 어떻게 영상에 담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져준다. 영화 〈동주〉를 이용하여 어떻게 '윤동주 아우라'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글의 연구 목표다.

영화를 통한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영화 속의 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⁴⁾도 있고, 또한 영화를 이용한 인문학 혹은 글쓰기 교육⁵⁾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 “영화와 소설의 활용을 통한 사고와 표현 교육은 학문적인 영역 이외에도 학생들의 교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와 표현력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황영미, 2015, 132쪽)이다.

특히 시인은 여러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골 유형이다. 파블로 네루다 시인이 등장하는 〈일 포스티노〉(마이클 래드포드, 1994)⁶⁾처럼 시인이

4) 최동호·권혁용 외, 2003, 『영화 속의 혹은 영화 결의 문학』, 서울: 모아드림.

5) 황영미 외, 2015, 『영화로 읽기 영화로 쓰기』, 서울: 푸른사상.

6) 김문주, 『은유, 그 서정의 전언-영화 〈일 포스티노〉』, 최동호, 위의 책.

등장하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김기덕, 2002)처럼 시적인 영화, 패터 한트케의 시『어린 시절의 노래』가 중요하게 삽입되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빔 밴더스, 1987), 그리고 영화〈햄릿〉처럼 대사 자체가 시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시를 주제로 한 영화에 대한 연구⁷⁾도 적지 않다.

이 글이 윤동주의 시와 삶을 나누고 교육하는 장소에서 이용되기를 바라며, 영화 〈동주〉를 분석해보려 한다. 과연 발터 벤야민이 채플린과 소비에트 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듯이, 영화 〈동주〉는 윤동주 아우라를 부분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을까. 영화 〈동주〉를 이용해 ‘윤동주 아우라’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윤동주 아우라’가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인물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영화기법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겠다. 이제부터 쓰는 내용은 그에 대한 분석이다.

II-1. 러닝타임, 선택된 다섯 가지 인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아쉬울 수는 있으나 사실의 재편집을 통해 영화는 더욱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도 사실을 재료로 할 때 영화를 만든다 해도 70% 정도의 실제 사실은 지켜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러닝 타임(running time, 上映時間)이란, 영화의 상영 길이를 말하며 극장에서 상영할 영화의 상영시간은 대개 90분에서 120분 정도다. 영화 〈동주〉의 러닝타임 110분 안에 윤동주의 생애 27년 2개월을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적인 창작물을 위해 시간과 인

7) 김중철,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영화 〈시〉 읽기』, 황영미, 위의 책.

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⁸⁾



〈그림 2〉

첫째,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선택은 일본인 고등형사(김인우 분)였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기소 사항으로 영화를 시작한 설정은 과감하다. 형사는 윤동주의 본적 등을 확인한 뒤 “송몽규와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건가?”라고 묻는다. 자막에는 “송몽규의 독립운동에 개입을 했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배우가 말하는 일본어는 “결국 송몽규의 군사활동에 참가한 것인가(つまり、宋夢奎の軍事活動に關わったのか)”이다(1분 40초, 이후 ‘1:40’ 식으로 표기하겠다. 그림2). 송몽규의 ‘군사활동’이라는 용어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하여, 시사회 이후 ‘군사활동’을 자막에는 ‘독립운동’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은 〈윤동주 판결문〉에 나오는 부분이다.

8) 그러나 사실을 지나치게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아우라에 대한 전시기치로서의 예술품으로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명성황후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콘텐츠로 만든 소설·드라마·영화·뮤지컬 등을 분석한 김응교, 『명성황후의 문화콘텐츠와 역사읽기』,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을 참조 바람.

조선의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종래의 무기를 모르면서도 징병제도의 실시로부터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군사지식을 체득하는 것에 이르러 장래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패배에 봉착(逢着)할 때 반드시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 민족적 무력 봉기를 결행해 독립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朝鮮に於ける徴兵制度を批判し朝鮮人は從來武器を知らざりしも徴兵制度の實施により新に武器を持ち軍事知識を体得するに至り將來大東亞戰爭に於て日本が敗戦に逢着する際、必ずや優秀なる指導者を得て民族的武力蜂起を決行し獨立實現を可能ならしむべき旨)⁹⁾

연구자들이 조심스러워 쉽게 해석하지 않는 부분이다. 영화는 과감히 ‘군사활동’으로 해석하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군사활동”이라는 물음에 괄호를 치고, 그 괄호의 의미를 묻는 식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고등형사가 윤동주를 심문하고, 마지막에는 송몽규도 심문하면서 두 사람의 과거가 드러난다.

분석가는 한 눈에 보기에 인간 심리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애매한 층위에 속하는 현상을 그들의 합리적인 근거로 환원시키려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 편으로 분석가는 신비로운 천리안을 가진 사람의 계승자로, 과학적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숨겨진 의미들’을 낳는 불가해한 징표들의 해독자로 나타난다.¹⁰⁾

마치 탐정 이야기의 살륙 홈즈,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처럼, 영화 〈동주〉에서 일본인 고등형사는 분석가의 자리에 위치한다. 전지전능한 주체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두 사람을 심문한다. 고등형사는 윤동주를 심문하며, 조롱하며, 회유하면서 마조히즘적 쾌감을 얻는다. 고등형사

9) 『윤동주에게 내려진 판결문』(1944. 3 31), 김웅교, 2016, 『처럼 - 시로 만나는 윤동주』, 문학동네, 444쪽.

10) Slavoj Zizek, 1995, 『뻔뻔하게 보기』, 김소연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08쪽.

없이 두 인물이 직접 자신을 회상하는 식이었다면 긴장감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징집령을 이용해 무장봉기를 계획한 건 자네의 생각인가? 송몽규의 생각인가? 송몽규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가? 대답해”(2:20)라는 물음으로 영화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로 플래쉬백(Flashback)하며 송몽규를 등장시킨다.

둘째, 송몽규(박정민 분)의 존재를 알린 점이 영화 <동주>의 큰 성과다. 어린시절 송몽규는 과대망상으로 들떠있는 듯이 보인다. 송몽규의 아버지는 윤동주 가문에 데릴 사위로 들어 왔는데, 그러다보니 더부살이 아이처럼 열등감이 있었고, 그것이 송몽규에게 평생 추동력을 주지 않았을까. 이후에 계속 송몽규를 투쟁적인 인물 유형으로 만든다. 윤동주와 송몽규 사이의 갈등과 믿음은 절묘한 시퀀스를 엮어냈다. 두 인물의 대비는 두 인물 각자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명희조 선생이 송몽규에게 수업 시간 끝나고 오라 한다. 그리고 송몽규는 정미소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던 윤동주와 문익환에게 “이 형님은 중국으로 간다. 전세계 인민을 하나로! 니들 이 형님 돌아올 때까지 공부 열심히들 해라”(17:10~17:25)라며 남경으로 간다.

1935년 4월 은진중학교 3학년 때 19세의 나이로 (송몽규는-인용자) 당시 남경(南京)에 잠복하고 있던 조선독립운동단체인 김구(金九) 일파를 찾아가 독립운동에 참가할 목적으로 동년 11월까지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김구 일파의 내부사정으로 말미암아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제남시(濟南市)에 있는 이웅(李雄)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찾아가 함께 독립운동을 펴려고 하였으나 사찰(査察) 당국의 압박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36년 3월 출생지의 부모 곁으로 돌아왔다.¹¹⁾

11) 「윤동주에 대한 일경극비조사문서 전문」, 월간 『문학사상』, 1977, 12, 303쪽.

윤동주가 송실중학으로 향했을 때 송몽규는 남경에 있는 김구에게 가서 독립운동을 교육받고 참가했다가 일경에게 체포된다. 급기야 인력거 뒤에서 요인을 암살하는, 확인되지 않은 장면(19:39)까지 넣는다. 송실시대(1935.9~1936.3)를 러닝타임에 넣으면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일까. 7개월 정도의 송실시대이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며, 17편의 시를 썼던 중요한 시기다. 송실시대를 삭제했지만 송몽규의 적극적인 투쟁을 영화에는 담아야 했기에, 송몽규의 투옥을 연희전문 시절에 있던 일로 편집한다. 윤동주가 제남시 웅기경찰서까지 면회 가는, 허구적인 사건을 설정한다(46:12).

송몽규는 연희전문 입학 전에는 어딘가 들떠보이는데,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일본에 가는 이유도 명확히 무장투쟁을 위한 것이고, 유학생들을 결집해 군사활동을 계획하다가 체포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셋째, 윤동주(강하늘 분)는 송몽규와 대비되는 여린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남을 배려하는 윤동주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대한 충실한 묘사도 돋보인다. 사소한 장면일지 모르나 연희전문학교로 입학이 되어 경성으로 떠나는 길에 윤동주는 모자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가 “야, 동주아, 그 연희전문 모자 바로 쓰라”(24:29)고 한다. 윤동주는 학생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학사모를 잘 쓰지 않았다. 동생 윤혜원의 증언을 보자.

첫 여름방학에 오빠가 귀향해서 교회고 어디고 여러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다닐 때 사각모자를 안 쓰고 나가면 아버지는 땀다 소릴 지르시는 거예요. “모자 쓰고 가라!” 하고요. 그러면 오빠는 마지 못해 쓰고 나가서는 길에서 벗어 담 안으로 던져버리고 가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넣고 가더군요.¹²⁾

12) 송우혜, 2014, 『윤동주 평전』, 서울: 서정시학, 236쪽.



〈그림 3〉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혜택을 숨기고 싶었을까. 학사모를 쓰지 않거나 뒷주머니에 찢어넣고 다녔다는 증언이다. 그 장면은 영화 포스터에(그림 3) 잘 담겨 있다. 학사모를 쓰지 않으려 했던 윤동주의 모습은 2초도 안 되는 짧은 장면이지만 인상 깊다. 이때부터 교복 옷깃에 ‘L’이라는 배지(badge)가 붙어 있는 것은 당시 대학 과정에서 문과대를 모두 ‘Literature’의 약자 ‘L’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희전문 시절의 윤동주가 때로 너무 나약하게 그려져 있다(31:55~34:12).

송몽규 :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이제 시는 가급적 빼라. 인민을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은 문학이 아니다...(중략)...이광수, 최남선 같은 변절자 따라하는 글들 다 내다버려.

윤동주 :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송몽규 : 거이, 어렸을 때 애기지.

윤동주 :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 잡혀 함부로 단정짓는 거.

송몽규 :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와, 시를 빼자 그래서리. 내레 이 문예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윤동주 :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송몽규 : 그런 힘이 어떻게 보이는데?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 문학 속으로 숨는 것 밖에 더 되니?

윤동주 : 문학을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애국주의니 민족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그런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버리는 거 그거야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 썩어빠진 관습 아니겠니?

송몽규가 “시는 가급적 빼라. 인민을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건 말이 아니지”(31:52)라는 대사를 당시 시를 발표했던 송몽규가 했을 리 없다. 연희전문 시절 송몽규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문우』에 시 「하늘과 더불어」를 꿈별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었다. 윤동주 또한 문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했을 리가 없다. 그가 십대 때 쓴 동시들을 보면 이미 그 이유가 써있다.

동시 「눈」에서 싸늘한 “지난밤”에 “지붕이랑 길이랑 받이랑 추워”해서 흰 눈이 이불처럼 덮어줬다고 그는 상상한다. 실은 사람들이 얼어죽을 “지난밤” 따스하게 덮어주는 이불을 그린 동시다. 본래 제목이 “이불”이었는데 지우고 「눈」으로 바꾼 것은 괜찮은 솜씨다.

동시『오줌싸개 지도』는 동생이 오줌 싸서 이불에 말리는 1연이 “꿈에 가본 엄마 계신/별나라 지돈가?/돈 벌러 간 아빠 계신/만주땅 지돈가?”라는 2연에서 멈췄한다. 오줌에 절은 이불을 말리는 아이는 부모 없는 결손가족 꼬마다.

넋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호주머니’를 의인화 한 동시『호주머니』(1937)도 재미있다. “겨울만 되면/주먹 두 개 갑북갑북”이란. 갑북갑북이란 가득가득의 함경도 사투리다. 가진 돈이 없어도 주먹이라도 있으니 힘내라는 동시다.

동시『반딧불』(1937)에서 반딧불을 주으러 가자는 구절은 재미있지만, 2연에서 “그믐밤 반딧불은/부서진 달조각”이라는 표현은 섬뜩하다. “그믐밤”에는 초생달이 뜬다. 보름달이었던 달이 자기 몸을 쪼개 조각을 떨구면 반딧불로 변하여 세상은 아주 조금 밝아진다. 윤동주는 초생달이나 반딧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었을까.

『팔복』(1940.12)을 쓰고 오 개월 이후에 쓴 『십자가』(1941.5)에서 “괴로웠던 사나이/행복한 예수·그리스도에게/처럼”, 슬픔과 함께 살아왔던 예수는 괴로웠지만 행복했다. 이어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내놓겠다고 한다. 모가지를 내놓는 태도야말로 “영원히 슬퍼하”겠다는 다짐이다.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가 선택했던 행복을 택한다.

윤동주가 연희전문에 입학하기 전에 쓴 동시만 보아도 영화에 나오는 대화를 나눴을 리가 없다. 이미 윤동주의 문학관은 주변인을 위하고자 하고¹³⁾, 동시『나무』처럼 주체적인 단독자들이 등장한다. 윤동주의 일상도 그렇게 폐쇄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았다.

- 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를 못하였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인을 보면 그 뒤를 밀어주었다...(중략)...봄이 되

13) 김응교, 2016. 6. 18, 『유효기간 없는 애도-윤동주의 동시』, 『한겨레신문』.

면 개나리 진달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여름이 되면, 느티나무 아래에 서 나뭇잎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연회동 논밭에서 결실을 음미하면서 농부들과 사귀었습니다.¹⁴⁾

- ②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방학 때 집에 오면 할아버지의 삼베 한복을 척 걸쳐 입고는 할아버지를 도와 소먹이 닭모이 등을 만들기도 하고, 산으로 소를 먹이러 가기도 했지요...(중략)...할머니와 어머니가 두부를 만들려고 통을 맷돌에 가는 걸 같이 도와드리기도 했지요. 힘든 일을 어른들이 하고 계시는 걸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¹⁵⁾

손수레를 끄는 여인을 뒤에서 밀어주고 농부와 사귀었다는 ①은 후에 연세대 교수가 되는 후배 박창해의 증언이고, 어른들이 힘든 일을 하던 외면하지 않았다는 ②는 여동생 윤혜원의 증언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윤동주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시만 쓸 거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증언에 따르면 윤동주는 늘 적극적으로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서시』를 읽을 때 많은 해설자들이 대부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에 주목하고 강조한다. 이 문장으로 윤동주를 자아성찰의 시인으로 단정해 버린다. 그런데 윤동주는 자아성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 문장 아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써 있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이다. 실천하기 위해 자아성찰했던 것이지, 자아성찰에 갇혀 있던 인물이 아니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리고”라는 단어에 있다. 자아성찰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라고 했다. 즉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은 맨 뒤에 하겠다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

14) 박창해, 1976, 『윤동주를 생각함』, 『나라사랑』 23집, 130~131쪽.

15) 송우혜, 위의 책, 235쪽.

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먼저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죽어가는 걸 사랑하는 흥내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윤동주 삶의 핵심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서시』)라는 문장에 모아져 있다.

다행히 작가는 윤동주를 기투(己投)하는 인물로 변화시킨다.

“그냥 끌려갈거냐? 조선인 유학생들 규합하자. 니가 하는 일에도 나도 끼워.”(79분)

이 말에 송몽규는 놀라서 담배 한 대 피웠다고 한다. 이 한마디는 어린 시절부터 데릴사위의 아들로 더부살이 아이처럼 살아온 송몽규와 송몽규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윤동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계기가 된다. 연희전문 시절 윤동주를 너무 나약하게 묘사하여 취조받을 때 “그렇지 않다(そんなことはあり得ない)”(19:43)며 탁자를 치며 일어나는 장면이나, “지금 조작하는 것입니까? 송몽규가 암살자로 보입니까?”(22:47)라는 항변도 조금 갑작스럽게 보인다. 극적 효과를 위해 송몽규를 액티브하게 그려내다 보니 윤동주를 지나치게 감상적인 인물로 등장시킨 것이 아닐까. 심문 과정에서 당차게 형사에 응대하지만, 나약한 청년에서 시대의식을 갖고 결단하는 인물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도 급작스럽다.

넷째, 연희전문 시절에 이어진(신윤주 역), 그리고 일본 유학 시절에 후카다 쿠미(최희서 역)이라는 가상의 여성은 시퀀스를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어진은 강처중과 정병욱의 증언 등을 참고할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는 한 여성(女性)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 여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끝내 고백(告白)하지 않았다. 그 여성(女性)도 모르는 친구들도 모르는 사랑을 회답(回答)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사랑을 제 홀로 간직한채 고민(苦悶)하면서도 희망(希望)도 하면서 — 축스럽다 할까 어리석다 할까? 그러나 이제 와 고쳐 생각하니 이것은 하나의 여성(女性)에 대(對)한 사랑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또 다른 고향(故郷)”에 대(對)한 꿈이 아니었던가. 어쨌던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힘써 감추었다.¹⁶⁾

그분의 따님이 이화여전 문과의 같은 졸업반이었고, 줄곧 협성교회와 케이블 목사 부인이 지도하는 바이블 클래스에도 같이 참석하고 있었다. 동주 형은 물론 아니 어린 나에게 그 여자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¹⁷⁾

정지용을 등장시키기 위해 이여진을 옥천 출신으로 설정하고, 정지용 집에 함께 간다. 다만 윤동주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김약연이나 정병욱이 등장하지 않아 아쉽다.

다섯째, 주요인물이 아닌 부차적 인물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끊임 없이 사실(史實)을 생각하게 한다. 윤동주의 외삼촌 김약연이 등장하지 않는 대신,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은진중학교의 교사를 했던 명희조 선생이 등장한다(13:46). 영화에서 1935년 교실에서 명희조 선생이 “춘원 이광수는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14:45)라고 말하는 디테일도 돌아 보인다. 춘원 이광수(李光洙, 1892~1950.10.25)는 『민족개조론』(월간 『개벽』, 1922)을 발표하면서 친일의 맹아를 보이기 시작한다. 1937년 6월 일제는 안창호, 이광수, 주요한 등 동우회 관계자 181명을 체포하고 그 중 41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일제는 동우회 관계자들을 회유, 전향시키는데 춘원은 6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친일에 들어서 1938년 사상전향서를 법원에 제출해 친일을 공

16) 강처중, 1943, 『발문』,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70쪽.

17) 정병욱, 1976,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38쪽.

식화 했다. 1940년 고야마 미타로(香山光郎)라고 창씨개명 했다. 영화에서 명희조 선생이 1935년에 춘원의 친일을 언급한 것은 관객들이 전체적인 시대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문익환은 정미소에서 잡지를 만들 때 송몽규가 “익환이 니 시 한번 써봐라”(13:35)라며 등장하고, 명희조 선생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송몽규가 “우리 익환이는 신학대를 갈 거구”(17:00)라고 말한다. 시사회에서 이준익 감독은 문익환을 등장시키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에 아들인 배우 문성근씨에게 정지용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저예산 영화였기에 배우들을 충분하게 기용할 수 없어 대여섯명의 ‘양상블 보조배역’¹⁸⁾들이 분장하면서 계속 등장했다고 한다. 또 영화를 본 조선죽들은 배우들의 함경도 사투리가 너무 생경해서 영화에 몰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일본어의 경우 재일교포가 나왔고 주인공의 일본어 발음도 좋았지만, 한국 배우들이 말했던 함경도 사투리가 너무 서툴렀다고 한다.



〈그림 4〉

18) 제작자 신연식 감독의 표현이다. 영화 〈동주〉에서 자신도 5번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고 2016년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했다.

II-2. 고정점, 14편의 시와 시퀀스

이 영화에서 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시의 선택과 배치가 너무 어긋날 때도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윤동주의 첫 시 「초 한 대」, 「내일은 없다」, 「삶과 죽음」은 1934년 12월 24일에 쓴 것으로 시 말미에 적혀 있다. 그 날은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온 날로 송우혜는 추론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 자막에는 1934년이 아닌 “1935년 북간도 용정”(2:29. 그림 4)이라고 써있다. 송몽규에게 신춘문예 통지가 온 때는 1934년 12월 24일경이기에 1935년이라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르다. 1931년 늦가을¹⁹⁾에 명동마을에서 용정으로 이사갔기에 “용정”이라고 쓴 부분은 맞지만, 이후 많은 사실들이 영화 속에서 뒤죽박죽 섞이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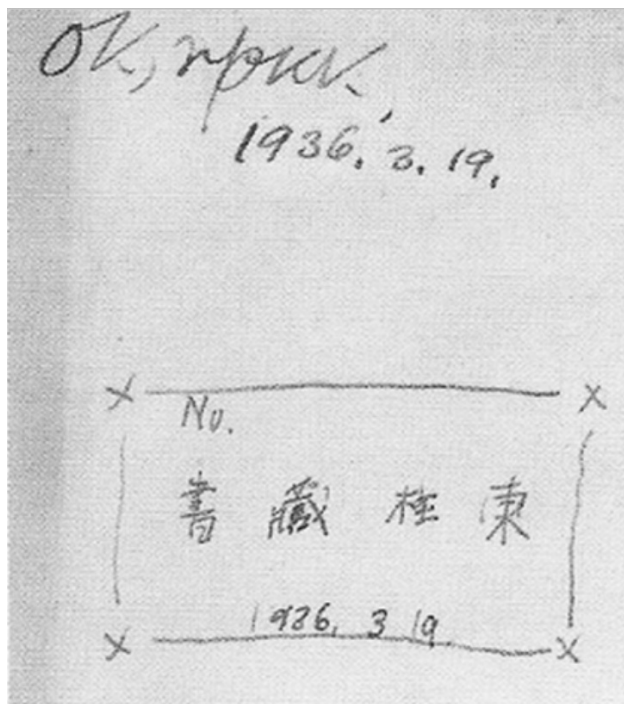
이어 등장하는 『정지용 시집』과 백석 시집 『사슴』은 실제 출판시기가 영화와 다르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송몽규가 연설하고 뛰어가 들어간 정미소에서 송몽규가 “야, 동주야, 내 너한테 보여줄게 있다. 주세요. 형님, 해보라”라며 다락에서 시집을 넘긴다(5:3~5:28). 윤동주는 “정지용 선생 시집, 이거 어디서 났니? 이야,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라며 기뻐한다. 이어 문익환이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날은 1934년 12월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용 시집』은 1935년 10월 시문학사에서 간행되었고, 윤동주가 책 속지에 장서로 기입한 날은 1936년 3월 19일(그림 5)로 영화 장면의 날짜에서 15개월 이후다.

그날밤 송몽규는 자기 방에서 시집 하나를 빼어든다. 백석 시집 『사슴』이다(10:13). 그 시집을 송몽규는 시를 쓰고 있는 윤동주 방에 건넨다

19) 송우혜, 2014, 『윤동주 평전』, 서울: 서정시학, 107쪽.

(11:00). 윤동주가 쓰고 있는 시는 역시 그날 1934년 12월 24일에 썼던 「내일은 없다」이다. 그런데 『사슴』은 1936년 1월 선광인쇄주식회사에 출판되었다. 그러니 영화 장면의 때인 1934년 12월에서 13개월 이후다.



<그림 5> 윤동주의 사인이 써 있는 『정지용 시집』

<동주>에서 윤동주의 시는 14편이 나온다. 중요한 시들이 많이 빠져 아쉽다는 이들이 있다. 신연식 제작자는 “원래 『동주』 앞부분에 「십자가」를 넣었는데, 영화의 흐름과 맞지 않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시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영화에 시가 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영화의 흐름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할 것, 둘째 영화에 삽입되어야 할 시가 시대와

맞아야 하고, 셋째 윤동주의 시들 중 잘 알려진 대표작이어야 한다는 등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뺐다고 한다. 영화에 나온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보며 시가 적절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한다.

① 「내일은 없다」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시이고 발표된 기록이 없다. 원고지에만 남아 있는 작품이다. 영화에서는 문예지 『신명동』에 실린 작품으로 나온다. “학생 잡지 만들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신명동』이라는 제목도 붙여주시고”(12:18)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으나, 아버지에게 의과에 가지 않고 글 따위를 왜 쓰냐는 야단만 맞는다.

② 「흰 그림자」는 명희조 선생과 대화한 이후 송몽규가 새벽을 틔타 중국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1~2연이 낭송된다(17:50). 실제 이 시를 윤동주가 썼던 때는 1942년 릿쿄대학 시절로 영화에서의 시간인 1935년과 차이가 있다.

황혼(黃昏)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루 종일 시든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영화 속 시간인 1935년과 실제 시를 발표했던 1941년은 6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발자취 소리”를 송몽규로 상징되는 시대의식으로 연결지어, 형사가 “발자취 소리라. 누구의 발자취 소리를 의미하는가”(18:32)라고 묻게 만든 편집은 절묘한 상상력으로 보인다.

③ 「쉽게 씌여진 시」는 영화에서 여러 번 나뉘어 등장한다. 동주를 심문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은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구절을 읊으며, 형사는 “세상에 대한 너의 태도가 분명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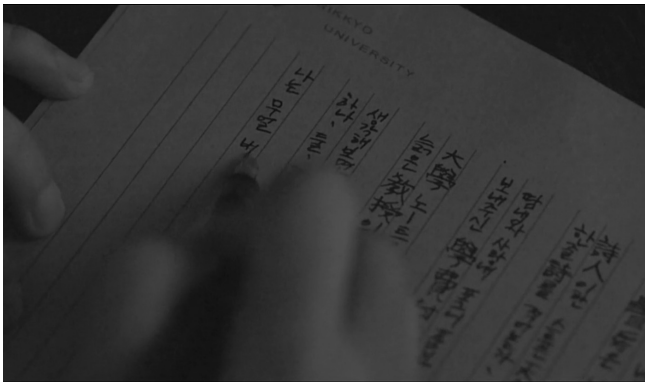
읽혀진다”(23:16)고 압박한다.

후반부에서는 비 내리는 날 송몽규는 결사모임에 윤동주를 떼어놓고 떠난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홀로 남은 윤동주, 화면이 바뀌어 결사모임에 유학생들이 모이는 장면에서 1, 2연이 낭송된다(84:00).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유학생들이 혁명과 투쟁을 결의하는 장면에서 윤동주는 6년까지 원고지에 써내려 간다(그림 6). 결사모임에서 송몽규가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세계를 타파하고, 국가가 또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장면이 바뀌며 비 내리는 창밖을 보는 윤동주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낭송한다. 이어서 취조실에서 형



<그림 6>

사 앞에서 수갑 찬 두 손을 굳게 잡고 고개 숙인 윤동주의 내면에서 울리듯 마지막 연이 낭송된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은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영화 <동주>에서 「쉽게 쓰여진 시」는 시퀀스와 너무도 잘 맞게 배치되어 있다. 형사 앞에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며 이제 짧지 않은 생애에 자기정체성을 깨닫는 장면(97:00)은 상찬할 수밖에 없는 명장면이다.

④ 「병원」은 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 안에서 이름모를 주사를 맞으러 늙은 의사 앞에 앉을 때 낭송된다.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된다”(23:30)는 2연의 한 부분이다.

이 시를 1940년 12월에 썼지만, 영화에는 1942년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연상하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절룩이며 끌려가 늙은 의사 앞에 앉는 장면(그림 7)에서 낭송이 흘러 나오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 장면에 “그 정도 비싼 돈이 들면 의사나 될 것이지”(24:00)라는 아버지의 대사와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over lap)되면서 시 구절은 더욱 애잔하게 들린다.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는 식민지 청년은 울증(鬱症) 같은 ‘식민지적 병’(Colonial disease)²⁰⁾



〈그림 7〉

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식민지적 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비교하자면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1942)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알제리에서 살던 프랑스 청년 뫼르소가 단지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너무 낮설어 알제리인을 살해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인이 갑자기 조선인을 살해한 모양새다. 삶에 의욕을 잃은 무기력한 식민지의 청년들, 반대로 절망하여 판단력을 잃는 제국의 청년들이 겪었을 ‘이름 모를 병’이 식민지적 병이 아닐까.

⑤ 『새로운 길』은 경성에 있는 연희전문학교에 향하는 기차 안에서 송몽규와 도시락을 먹을 때 낭송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20) 김응교, 2016, 『처럼 - 시로 만나는 윤동주』, 문학동네, 280~286쪽.

한글학자 최현배 교수를 좋아했고, 그의 수업을 들었던 윤동주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순우리말로 쓴 시다. 내(넋물)나 숲이나 고개가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희망을 갖고 연희전문에 입학하는 윤동주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다. 1948년 4월 연희전문에 입학하자마자 한 달이 지난 5월 10일에 쓴 시다. 실제 창작한 시기와 같은 적절한 시기로 영화에서도 그대로 잘 배치되었다.

⑥ 『별 헤는 밤』의 1~4연의 낭송은 영화 <동주>에서 비극적 아름다움을 가장 잘 영상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싶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까닭 모를 주사를 맞고 병들어 버린 윤동주(30:58)가 감옥 철창 밖을 바라본다. 철창 밖에 별이 쏟아지는 듯한 밤하늘은 확대되면서, 밤하늘 아래로 카메라가 내려가면서 시퀀스는 연희전문 시절로 바뀐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객관적인 상관물인 ‘별’을 매개로 작은 하숙방에서 송몽규, 강처중, 이여진과 『문장』을 편집하는 연



<그림 8>

회전문 시절로 플래시백 한다. 이어서 송몽규와 윤동주가 문학관의 차이로 목소리를 높이고나서, 윤동주가 이여진을 배웅하며 밤길을 거닐 때 「별 헤는 밤」 5~6연이 다시 낭송된다(35:55).

프랑시스 잠, 라이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이 구절은 이여진이 윤동주에게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라고 물을 때 윤동주의 내면에서 울리는 혼잣말처럼 낭송된다. 이어서 “별 하나의 추억과 / 별 하나의 사랑과 / 별 하나의 쓸쓸함과 / 별 하나의 동경과 / 별 하나의 시와”(4연)을 다시 이어 넣는다. 「별 헤는 밤」을 영화 <동주>에 배치시킨 방식은 윤동주의 시가 가장 아름답게 영상화 된 명장면(그림 8)이 아닌가 싶다.

⑦ 「아우의 인상화」는 아버지에게 교토대학으로 진학하겠다고 말한 윤동주가 동생 윤혜원 윤일주와 얘기 나누는 방에서 낭송된다. 윤동주가 누워있는 남동생 윤일주에게 “공부가 그리 힘들면 커서 뭐가 될 텐데”(52:00)라고 묻자 어린아이인 윤일주는 “사람이 되지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여동생 윤혜원이 “공부를 해야 사람이 되지”라고 말한다.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앓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동생들이 잠에 들자 윤동주는 곧바로 방금 있던 대화를 시로 기록한다. 윤동주가 『아우의 인상화』(『조선일보』1938.10.17)를 어떻게 썼을지 마치 현실을 재현하듯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⑧ 「바람이 불어」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기차에서 옆자리에 송몽규가 졸고 있는 장면에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와 /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1,2연)고 메모하며 낭송된다.

⑨ 「참회록」은 창씨개명을 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 이후 일본 유학을 가려고 부두에서 기다리는 장면에서 낭송된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 이름이 케이후쿠마루[景福丸]라고 쓴 당시 고증이 뛰어나다(57:00). 갑판 위에 선 두 사람의 어깨 뒤로 일장기가 펄럭인다.

⑩ 「봄」은 릿쿄대학 교실에서 영문학 수업을 듣다가 창밖에 떨어지는 벚꽃을 보고 릿쿄대학 편지지에 제목과 첫줄을 쓰는 것만 나온다. 낭송은 없다.

⑪ 「사랑스런 추억」은 릿쿄대학의 다카마쓰 교수가 소개해준 쿠미 양과 전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낭송된다. 이 시는 조선에서 떠나기 전 상황을 쓴 시다. 쿠미 양은 윤동주의 시를 영문으로 번역하겠다고 말한다.

⑫ 「공상」은 최초로 활자화된 윤동주의 시로 1935년 10월에 발간된 『승실활천(崇實活泉)』지에 실려 있다. 송몽규가 교토에 있는 유학생 앞에서 연설하다가 일경에게 발각되는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나는 말없이 탑을 쌓고 있다”며 낭송된다. 다른 유학생들은 발각되어 위험한 상황인데 시집 출간을 생각하는 동주의 마음은 “무한(無限)한 나의 공상(空想) — / 그것은 내 마음의 바다”라고 표현된다(89:00). 암울한 시대에 대한 윤동주

의 죄책감을 드러낸 시다.

⑬ 「자화상」은 밤길에 윤동주 곁을 떠나는 송몽규의 뒷모습이 나올 때 낭송된다(91:00). 일경을 피해 도망친 송몽규가 윤동주를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한다. 쿠미 양과 만나기로 했던 윤동주는 내일 시모노세키에서 만나자고 하고 송몽규는 밤길을 떠난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
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를 윤동주 내면의 다성적(多聲的)인 면을 드러낸 작품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자화상」에 나오는 사나이가 송몽규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윤동주의 분신으로만 해석했던 “사나이”를 송몽규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윤동주에게서 떠나 골목길을 따라 피신하던 송몽규의 얼굴에 일경이 후렛쉬를 비추는 순간(그림 9)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라는 구절이 절묘하게 겹친다.

⑭ 「서시」는 가장 마지막 장면에 낭송된다. 영화에서는 동주의 시신을 윤동주와 송몽규의 아버지가 확인하는데, 사실은 시체를 가져가라는 사망통지 전보를 받고 윤동주의 아버지가 신경에 들러 거기 있던 당숙 윤영춘 선생과 함께 윤동주의 시신을 가지러 일본에 간다. “죽은 오빠의 얼굴이 꼭 자는 것처럼 곱더래요”(송우혜, 2015, 448쪽)라는 윤혜원의 증

언처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요히 잠든 윤동주 얼굴을 클로즈업 하고, 감옥에서 각혈하며 ‘괴로워 하는’ 윤동주 모습과 함께 오버랩 된다 (105:00).



〈그림 9〉

확인해봤듯이, 구성단위를 이루는 시퀀스(Sequence)마다 대표적인 시가 배치되어 있다. 시 전문을 인용하지 않고 최대한 핵심적인 구절만 시퀀스에 맞추어 낭송하거나 원고지에 쓰는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이 영화는 ‘시’에 관한 영화가 아닌 위인전 영화가 될 뻔 했다. 이 영화에서 시는 흩어진 구슬들을 꿰는 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편들은 내러티브 전개(narration)에 있어서 “소파 등받이의 고정점(point de caption)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완벽하게 보여”²¹⁾주고 있다. 관객들은 시의 구절과 내러티브의 전개를

21) Slavoj Žižek, 위의 책, 145쪽.

‘자연스럽게’ 환영(幻影)하며 받아들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동시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영화에서 삭제된 송 실시대 때 윤동주가 동시를 많이 썼기에 동시가 소개되지 않는 점도 있겠다. 그런데 영화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소설 등에서도 동시는 소개되지 않았다. 동시에 대한 무관심은 윤동주에 관한 모두 문화콘텐츠에서 나타난다.²²⁾

마지막 부분에서 윤동주가 영어판 시집을 내려는 과정이 나온다. 본래 시나리오에서는 윤동주가 일본어로 시집을 내고 싶어했다는 설정이었다고 한다. 일본어로 전혀 시를 쓰지 않았고, 한글이 금지된 상황에서 한글로 시집을 내려 했던 윤동주가 일본어 시집을 내려고 했다는 설정은 정말 위험한 설정이었다.²³⁾ 다행히 영문본 시집으로 바뀌었으나 실은 현실성이 없는 설정이다. 일본인 교수나 쿠미 양이 일본어 번역본 없이 어떻게 윤동주의 한글 시를 공감할 수 있었을까. 또한 전쟁 시기에 적극 출판사와 우편물을 교신한다는 설정은 가능하지 않다. 〈동주〉를 일본에서 상영한다면 전시 사정을 아는 일본인 관객들은 실소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 필자는 2016년 5월 13일 이 문제를 연세대에서 열린 기념심포지엄에서도 지적했었다.

23) 필자는 지난 2016년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윤동주 기념 심포지엄〉에서 송 우혜 선생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윤동주 시인의 조카인 윤인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준익(李濬益) 감독이 저예산으로 여러 시도를 하며 시사회를 7회나 여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선 시인의 명예만 먹칠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픽션이 가미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윤동주 평전』을 썼던 송 우혜(宋友惠) 선생이 시나리오 작가가 일본어 시집을 낸다고 설정하자 펄펄 뛰는 바람에 시를 영국에서 보내 영역시집으로 내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윤인석 교수 인터뷰, 『아버지, 동주 형 이름에 누가 될까 시집도 안 내고 돌아가서』, 『월간 조선』, 2016년 5월호).

II-3. 네 가지 기법 - 추리, 플래시백, 흑백영화, 시집 구성

영화기법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추리 혹은 심리 소설 기법이 사용되었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살인자의 심리에 주목한 범죄심리소설이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인자가 누구인지 추적해가는 소설이다. 영화 <동주>는 『죄와 벌』처럼 이미 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독은 이야기의 흐름보다 형사가 윤동주와 송몽규를 취조(取調)할 때 윤동주와 송몽규의 심리 변화에 관객이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형사에게 취조받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반추하는 플래시백(Flashback)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플래시백을 자주 반복하면 영화의 속도감이 떨어져서 몰입하기 어렵고, 구성이 난잡해질 수 있다. 관객 입장에서는 신경써서 인과관계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영화 <역린>(2014)이 잦은 플래시백으로 지적받았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1950)은 추리극의 형식을 빌어 4개의 플래시백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게 만든다. 반면 히치콕의 공포영화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blockbuster) 액션영화들은 플래시백을 쓰지 않고 막힘 없이 빠르게 시간의 흐름을 압박한다. 영화 <동주>에서 플래시백에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이미 윤동주의 삶을 알고 있는 곧 인과관계를 이미 추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떻게 플래시백을 엮어 나가는가에 대한 흥미가 붙는다. 처음 취조장면으로 시작하여, 어린 시절부터 감옥생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성해낸 <동주>의 플래시백은 적절한 효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셋째, <동주>의 장점은 흑백영화라는 사실이다. 이준익 감독은 저예산 영화였기에 흑백영화로 찍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컬러보다 흑백영화가 효

과를 자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흑백 영화로 찍었기에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준다. 컬러였다면 스토리보다 아름다운 영상에 취할 수도 있겠지만, 흑백영화였기에 오히려 먹먹한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흑백이었기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든다. 단순히 암울한 시대를 상상하게 한다. 영화 <원들러 리스트>도 흑백영화였다. 흑백영화는 선/악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흑백영화의 진가는 클로즈업 하는 장면에서 발휘된다. 카메라가 배우 얼굴을 흑백으로 찍어낸 강렬함은 큰 매혹이었다. 특히 체포된 송몽규 얼굴에 희멀겑게 퍼진 피부병 버짐이나, 감옥에서 점점 병들어 가는 윤동주의 얼굴은 흑백영화에서 더욱 강렬하게 돌아 보였다. **“얼굴, 얼마나 소름끼치는가. 자연스럽게도 얼굴은 모공들, 평평한 부분들, 뿔연 부분들, 빛나는 부분들, 하얀 부분들, 구멍들을 가진 달의 풍경이다.”**²⁴⁾ 흑백 영화가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는, 물론 여기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얼굴’이든 클로즈업 할 때는, 그 얼굴이 처한 권력관계나 분노 등 온갖 심리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플래시백과 흑백영화를 써서 감독은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한 시인의 실존을 돌아 보이게 한다. 영화 후반부에서 형사와 윤동주가 나누는 격론(激論)에 제작진이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 (77:00~79:10).

윤동주 : 아시아 해방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수십 만명이 희생되고 있는데...그게 무슨 희망입니까.

형 사 : 인류 발전을 가로막는 너희같은 나약한 자들이 전쟁의

24)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2003, 『7. 얼굴성』,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362쪽.

의미도 모르고 승리의 열망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아시아는, 아시아는! 서구 열등감의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다.

후반부로 갈수록 제국주의에 대립하는 갈등은 격하게 진행된다. 동생
윤동주가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송몽규는 혼자 결사모임으로 떠나고
(84:00), 윤동주와 송몽규가 체포되고 기소문에 서명하라는 형사에게
두 사람이 교대 교대로 화면이 바뀌어가며 답하는 몽타쥬 기법(96분)이
이용된다.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말에 송몽규는 절규한다.

송몽규 : 니들이 허울 좋은 명문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숨길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형 사 : 문명국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다.

송몽규 : (책상을 치며)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식
사법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국이라 부르는 건가?”(95:00)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는 송몽규의 따귀를 때린다. 이 부분은 국가폭력
을 자행하는 제국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며, 제작진의 의도가 가장 강
하게 드러난 대사다. 시사회에서 이준희 감독은 “윤동주와 송몽규를 통해
일본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
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 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자책하며 윤동주는 서명하지 않고 진술서를 찢는다(101:00).
송몽규의 그림자였던 윤동주가 이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이 아닐까.
창집에서 윤동주가 체포되려는 최정점에서, 모든 시퀀스를 한 마디로 함

축하는 단어는, 체포되기 직전에 윤동주가 나직한 목소리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라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시!”라는 강한 발음과 함께 관객은 그의 삶과 죽음이 의미있는 ‘살리는 죽음’²⁵⁾이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

넷째, 영화 전체를 시집처럼 구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주>의 엔딩크레딧은 또다른 묘수다. 흔히 종영 자막, 엔드 크레딧(End credits) 혹은 콜로징 크레딧(Closing credits)이라 하는 마지막 부분에는 주제곡과 함께 프로덕션, 스텝, 출연자 등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credits)이 포함된다. 파블로 네루다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일 포스티노>의 엔딩크레딧은 네루다의 시 『시』였다. 성룡(成龍)의 액션영화는 NG모음을 엔딩크레딧에 볼거리로 넣기도 한다. <동주>에서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생애가 실제 사진과 함께 비교되며 올라가는 하나의 시퀀스를 이룬다. 오프닝 크레딧부터 생각한다면, 감독이 영화를 한 권의 시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래된 시집을 열 듯 “동주”라는 영화 제목과 세로쓰기로 오프닝 크레딧부터 열린다. 시집 뒤에 시인의 약력이 나오듯이 두 인물의 연표로 닫는 엔딩 크레딧 형식이다.

학교 사진, 가족사진, 묘비 사진 등을 통해 이준익 감독은 “이 영화가 사실에 근거한 영화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시사회에서 말했다. 엔딩크레딧 이후에 갑자기 윤동주와 송몽규가 그네를 뛰고 문익환이 곁에서 웃는 장면이 컬러로 나온다. 아쉽게도 윤동주나 송몽규가 아니라 강하늘과 박정민으로 느껴져 흑백영화의 여운을 깨뜨려 버렸다.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하는 지점에서 끝내는 여운이 있지 않았을까.

25) 김응교, 『처럼 - 시로 만나는 윤동주』, 432쪽.



엔딩 크레딧에 기록된 두 사람의 삶이 있기까지 함께 기억해야 존재들이 많다. 영화 〈동주〉에 나타난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보며 파시즘에 저항했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깊은 공부일 것이다. 〈동주〉에는 정지용, 백석, 문익환, 이광수, 이웅, 강처중, 윤치호, 정병욱 등 동시대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시사회에서도 이준익 감독은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발터 벤야민 등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인물들을 비교해 생각할 수 있겠다. 가령 독일 나치의 히틀러 정권에 대항했던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시간²⁶⁾도 있었다.

26) 2016년 5월 13일 신촌의 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영화 〈동주〉 상영후 필자는 고재길 교수(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윤동주와 본회퍼(Bonhoeffer)〉라는 제목으로 시네마

Ⅲ. 회감과 성찰의 힘 - 결론

영화 <동주>는 ‘윤동주 아우라’를 기억하는 회감(回感) 작용을 일으켰다. 관객들이 반복하여 기억할 수밖에 없는 회감력을 융기(隆起)시켰다. ‘윤동주 아우라’를 되살리기 위해, 이 영화는 다섯 가지 인물(형사, 송몽규, 윤동주, 여진, 부차적 인물)을 등장시켰다. 또한 14편의 시를 적절히 선택 인용하여 시퀀스를 의미있게 하는 고정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법으로는 추리기법, 페이드 백, 흑백영상, 시집 구성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첫째, 시 : 영화 <동주>에서 성공적으로 나레이션 한 시 특히 「쉽게 쓰여진 시」, 「별 헤는 밤」, 「자화상」은 시퀀스와 잘 배치된 성공적인 부분이다. 편집하여 수강자들에게 보여주고 영화의 해석과 실제 해석의 차이와 다양성을 나눌 수 있겠다.

둘째, 작가 : 영화 <동주>에 나타난 정지용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고, 윤동주와 정지용 그리고 백석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이광수에 대한 평가를 보며 한국현대문학과 친일의 문제를 나누어도 좋겠다.

셋째, 역사 : 영화 <동주>를 통해 윤동주 판결문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송몽규의 등장과 역할도 중요하다. 1940년대 파시즘 시기를 경험했던 다른 인물들을 비교해 생각해 봐도 좋겠다.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성찰적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크를 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신학자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서클에 가입하여 39세에 사형당한 목사다. 윤동주처럼 시를 본회퍼도 시를 썼으며 감옥에서 2년간 쓴 『옥중서신』에 20여 편의 시가 남아있다. 「자유에 이르는 정거장」, 「고난」, 「나는 누구인가」 등 본회퍼가 쓴 시는 윤동주의 시처럼 여리고도 외연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넷째, 삶 : 감옥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며 윤동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썼던 의미는 무엇일까. ‘살리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영화 기법 : 영화 〈동주〉의 추리기법, 플래시백과 흑백영화 등 여러 기법을 논하면서 문예양식으로서 영화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겠다.

여섯째, 글쓰기 : 영화를 통한 성찰적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 쟁점 토론, 주제관련 논점정리, 체험을 바탕으로 사고 확장 훈련, 개요쓰기, 개요를 바탕으로 한 글 구성, 글 강평 및 협력 첨삭, 자기성찰 글 완성하기, 교수자의 개인첨삭 과정(황영미, 2015, 128~30쪽)을 거쳐 한 편의 성찰적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 영화 〈동주〉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들은 영화를 통한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위한 쟁점이 될 것이다. 고독한 상황에서 자아성찰을 통해 실천을 생각했던 윤동주의 엄결성(廉潔性)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시작했었다. 영화라는 장르도 복제예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벤야민은 기대하고 있다. ‘아우라 자체’가 아니더라도, ‘아우라적인 것’에서도 전시가치를 넘어 제의가치를 공감할 수 있다. ‘사이비 아우라’가 아니라 ‘아우라적인 것’에만 접근해도 의미가 있다. 그 문화콘텐츠를 통해 아우라는 회감하고, 기억할 때, 이미 성찰과 연대의 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처중, 1943, 「발문」,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 김응교, 2010, 「‘명성황후’의 문화콘텐츠와 역사읽기」,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89~124.
- _____, 2016, 『처럼-시로 만나는 윤동주』, 서울: 문학동네.
- _____, 2016. 6. 18, 「유효기간 없는 애도 - 윤동주의 동시」, 『한겨레신문』
- 박창해, 1976, 「윤동주를 생각함」, 『나라사랑』 23집.
- 송우혜, 2014,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 최동호·권혁웅 외, 2003, 『영화 속의 혹은 영화 결의 문학』, 모아드림.
- 황영미 외, 2015, 『영화로 읽기 영화로 쓰기』, 푸른사상.
-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2003, 「7. 얼굴성」,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 Slavoj Zizek, 1995, 『빼딱하게 보기』, 김소연 역, 서울: 시각과 언어.
- Walter Benjamin, 2009,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6),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작품』, 최성만 역, 서울: 길.

<Abstract>

Movie *Dongju* and The Aura of Yun Dong-Ju

Kim, Eung-Gy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is to analyze how the film <Dongju>(directed by Joonik Lee, 2015) recreated the life of Yoon-Dongju, the character who the film is based upon and the period he lived. The director chose four characters and a group of subsidiary characters to recreate the world of Yoon-Dongju and aura of his character. The four characters are Yoon-Dongju himself and Japanese detective who constantly checks on Dongju, Song-Monggyu who is Dongju's cousin and a mentor of his, and Yeojin the female lead who is created by the director loosely based on the character Sooni from Dongju's poems. And the group of subsidiary characters include prominent characters of the era such as Yoon-Chiho, Chung-Jiyong, Moon-Ikhwan.

This film uses Dongju's 14 poems as pivot points to turn the meaning of each sequence and thread them together. This film was shot entirely in black and white and employed various cinematic techniques to enhance the viewership.

If you are not a total stranger to Yoon-Dongju and his poems, you might want to bring up a few points to talk about after watching this

film. First, does this film take unconventional interpretations on Dongju's poems and if it does, how does it do and why? Second, what about those main and subsidiary characters? Do they work properly? Third, let's pay attention to the ruling from his trial. Have we ever read the ruling before? This is a really good chance to read it again and think about it, thoroughly. Fourth, as we all know and portrayed in this film, Dongju died in the Japanese prison. This is a good chance to discuss about it.

Key Words: Movie, Yun Dong-Ju, Aura, black-and-white biographical period drama film

논문 투고일: 2016년 8월 07일

논문 심사일: 2016년 8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27일